

급발진 공포, '날벼락'에 그칠까



자 상 권 의
관망과 훈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 차도에서 갑자기 차량이 덮치면 어떡하지”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차량 급발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몰아친 날벼락이 ‘급발진포비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차량조심, 보행조심을 주문한다.

2019년 이후 당국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300건을 훨씬 넘는다. 이중 자동차 메이커의 잘못이나 기계적, 차량 시스템적 결함은 한 건도 없이 운전자 귀책으로 그럭저럭 넘어왔다.

그런데 우리를 주변에서 어른거리던 대형 참사의 그림자가 상상도 못했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현실화됐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에 이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3일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6

일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덮쳤다. 9일엔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의 3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로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의 조작실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동안의 급발진 의심사고를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운전자가 기계적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고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역량을 더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전문화된 기관이 사고를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사고원인 논란과는 별개로 부정적 과급효과는 엄청나다. 점이다. 온국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날벼락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겼다. 일상속에서 무엇보다 친숙한 차량이 두려워졌고 가장 안전해야 할 도심 인도에 대한 공포증이 만연해졌다고 하면

과연일까.

최근 사고가 고령자 등 고위험운전자에게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게 있다. 사고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차량의 돌발행동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보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고도로 전자화, 전기장치화하면서 가끔 먹통이 되곤 하는 컴퓨터처럼 언제든 오작동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훨씬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를 위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첨단 운전보조장치를 모든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는게 시급하다. AEB는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충돌이 예견될 때 차량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이다. 버스나 트럭에선 이전부터 장착돼왔고 지난해부터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 특수차로 의무화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미 운행중인 차량엔 강제 장착이 어렵다.

모든 기계장치엔 비상시 즉각 작동을 멈추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자동차만 이렇게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더욱 의아하게 하고 있다. /skc8472@metroseoul.co.kr

‘의대생 유급방지책’ 특혜인가 공익인가



기 지 수 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공익(公益). 공공의 이익. 사전적 의미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교육부는 20일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그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되는 ‘유급 여부’는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

제점을 받으면 유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석 판단 시기를 늦추며 그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다. “복귀만 하면 유급은 없다”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1년간 30주’로 정해진 수업일수는 28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공짜’ 보충학기까지 권고했다.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 말대로 ‘공익’이 출발점이다.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내 대학 역사상 ‘전국에서’ ‘동(同)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벗어난 혜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지적

도 나온다. 이번엔 나온 ‘꼰장’ 대책이 되레 ‘꼰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의대는 해야 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연 수업일 수를 30주 중 2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업량은 7% 가량 줄게 된다. 의대 1년 수업 중 전공 서적 1권 분량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익’은 농친 셈이다.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시기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선불렀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의대생들에게 당근부터 내놔야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동맹휴학 분위기는 여전하다. 정부가 추가 시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 4년생들은 국가시험 집단거부 조

오늘의 운세 7월 12일 (음 6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뚱뚱의 초대로 기분은 좋다. 48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오니 일이 풀림. 6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72년생 실망하지 마라 결실이 적어도 후회는 결코 없다. 84년생 재산문제로 배우자 가정과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37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 49년생 실수 연발도 하루하루 인생이다. 61년생 단점이 보이니 고칠 곳을 발견하면 당장 고쳐라. 73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대어를 낚는다. 85년생 탓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재도전하라.



38년생 오늘은 정든 사람과 이별하는 수가 있다. 50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매사 신중하게 행동. 6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7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86년생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조바심이나 내다.



39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1년생 농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5년생 운전자는 사고 과속운전은 주의하라. 87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40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2년생 건강 조심 지치지 쉬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 64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으니 먹는 것에 주의. 7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8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65년생 쥐띠가 찾아오니 귀인이다. 77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된다. 89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42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54년생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을 것이다. 66년생 썩지 않으려면 고인 물은 흘려보내라. 78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자 그림 해결된다. 90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하루.



43년생 가슴이 답답한데 한잔 술이 위로로. 55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7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최선을 다해야 된다. 79년생 향기가 없어도 꽃이 나까 아름답다. 91년생 공든 탑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 마무리를 잘하라.



44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 56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68년생 나의 삶에 일이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80년생 신념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92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45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 5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69년생 꿀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노력하라. 81년생 부지런하여 성공하게 되면 모든 잠을 없앤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을 받겠다.



46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자. 58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70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2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94년생 조화를 찾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4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니. 59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힘든 일은 뒷사람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3년생 자신의 약점은 꾸준한 공부로 극복. 95년생 호랑이 무서워 산애를 못가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삼복

2024년 삼복은 양력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로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일庚日이 초복과 중복이 되며 말복은 입추 절기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되니 근 한 달간 더위의 절정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이 열치열의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게 된다. 복날이 모래라 미리 지인과 함께 경북공역 근처의 삼계탕집을 찾았다. 세상애나! 땀별 더위 속에서도 늘어진 줄이 몇십 미터는 돼 보였다. 보아하니 외국 관광객이 태반이다. 복날에 삼계탕집을 찾았다가 사람이 몰려 허탕을 친 적은 있었으나 이 집은 거의 일 년 내내 이렇다.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가면 반드시 들려서 먹어야 하는 명소라고 한다. 필자는 다음 기회를 바라며 돌아섰다. 삼복 일로 특별히 경일庚日을 정한 데에는 불별처럼 뜨거운 해가 쇠를 녹일 정도의 더위라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삼복의 복(伏)자가 불화(火)에 속하는 여름이 쇠(金)로 의미되는 가을을 굴복시킬 정도로 더운 날이라 하여 특별히 경일庚日을 삼복 일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전래해오는 의미로도 “여름의 불기운에 가을의 쇠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고 하여 삼복이니 말이다.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은 열흘 간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갑진년은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다. 이런 때를 가리켜 월복越伏이라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말복은 입추가 지나야 말복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란단다. 우리의 선조들이 절기와 삼복과의 관계를 나름 합리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입추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열기가 달라진다. 낮엔 똑같이 더위도 살갓에 스치는 바람이 다르다. 오늘은 삼복에 대한 되새김을 한 날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드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9				
			2					
		3	4		7	1		
	5						4	6
		2				7		
9	1							8
		4	7		1	8		
				4				
		9	8	5				2

7		1	4	6				8
		8	5					
							6	5
							9	1
2								3
5	1							
9	8							
					4	8		
4				9	5	2		6

2	1	7	9	8	6	4	9
4	9	5	2	7	6	1	8
6	8	1	9	4	7	2	5
5	8	4	7	2	9	1	6
1	6	4	9	5	8	2	7
9	7	2	6	8	1	4	9
8	5	1	4	6	7	9	2
4	7	9	6	2	9	8	6
8	2	6	8	1	9	5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